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단연구사 검토

이혜정

영남신학대학교 조교수, 종교학 전공

kamihye@naver.com

- I. 머리말
- II. 역사
- III. 선교
- IV. 기독교교육
- V. 조직신학
- VI. 맺음말

## I. 머리말

본 논문은 한국종교 교단연구의 일환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하 통합교단)의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교단연구’와 ‘연구사 검토’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서론은 교단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사 검토의 필요성, 그리고 본 연구내용과 연구범위를 설명하려고 한다.

한국종교 연구경향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sup>1)</sup> 지금까지의 한국개신교 연구도 교단별 특징을 간과한 측면이 많았다. 개별 교단보다는 상위범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사, 한국기독교역사 저술은 교단별 특징을 세밀히 다루지 않는다. 한국장로교회사 저술이 있지만 장로교 교단을 모두 다루지 않고 주류에 해당하는 몇 개 교단을 중심으로 서술<sup>2)</sup>되어 왔다.

실제 한국개신교의 활동주체와 단위는 교단이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현황보고에 따르면 한국개신교단으로 등록된 장로교단은 168개 정도이다.<sup>3)</sup> 이들은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고 실제 동일한 교리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리, 의례, 조직 등 차이가 있고 다른 교단과 구별된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현재까지 한국개신교 연구경향은 교단별 차이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교단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지금까지의 개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경향은 한국개신교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단연구는 한국종교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향후 한국개신교연구에서 구체적인 교단중심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단연구사 검토는 현재 각 교단연구의 지형을 파악하고 향후 유관연구의 과제를 도출하는 의의를 가진다. 한국개신교단은 각자 정체성확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자체 교단연구를 실시하고 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교단존립과 발전의 근거를 삼는다. 그런 점에서 교단연구사

1) 고병철은 종교의 개별교단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고병철, 「한국 종교교단 연구의 현실과 과제」, 『종교연구』 70(2013).

2) ‘한국장로교회사’의 전반적 내용은 기타 한국교회사, 한국개신교역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낙홍, 『한국장로교회사』(생명의 말씀사, 2008); 임희국,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 한국장로교회 130년』(장신대출판부, 2013).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2012), 38-47쪽.

검토는 각 교단연구의 여정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주제이다.

현재까지 통합교단 연구는 주로 내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내부자들이란 주로 통합교단 산하 7개 신학교<sup>4)</sup>의 교수진이며 그 중에서도 직영신학교라 할 수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들에 의해 주로 교단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글은 이들의 연구 성과를 포함한 교단중심 연구사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통합교단 연구는 주로 개별 연구자들의 주제별 연구가 대부분이다. 연구사 검토는 학문분야마다 몇 편이 존재하지만 교단전체 연구사 검토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글은 연구사 검토가 이루어진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역사, 선교, 기독교교육, 조직신학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연구 성과들을 목록화하였다. 연구 성과 목록은 통합교단을 직접 명시하거나 언급하는 내용에 제한하고 교단에 관한 직접적 내용이 아닌 연구내용은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범위는 1950년대 한국장로교단 분열이후로 제한하였다. 분열이전의 교단연구는 한국장로교에 속한 다수 교단의 공통된 역사이지 통합교단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 성과목록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현재의 연구지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 중 통합교단연구를 명시한 것들만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역사, 선교, 기독교교육, 조직신학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sup>5)</sup>. 교단연구에서 어느 분야 연구가 집중되었는지, 연구사 검토의 계기와 내용, 미흡한 분야는 무엇인지, 어느 분야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셋째, 교단연구 성과에 나타난 연구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장로교단은 유사한 교리를 공유하면서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교단들은 교단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변증과정을 형성해 왔다. 이 과정에서 통합교단은 어떠한 쟁점이 대두되었으며 어떻게 논의가 정리되었는지, 현재의 쟁점논의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

4) 장신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부산신학대학교.

5)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존연구는 '통합교단연구'를 명시한 것만 해당하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네 가지 영역(역사, 선교, 기독교교육, 조직신학)을 벗어난 다른 영역은 다루지 않았다.

넷째, 향후 교단연구를 위한 과제, 전망을 도출할 것이다. 연구사 검토에 나타난 교단연구의 보완점이나 과제들을 정리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인 연구지형 파악은 현재 교단연구의 구체적 현실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미래의 과제를 조망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 II. 역사

역사분야 연구사 목록은 통사, 총회역사,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역사로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교단차원에서 교단 역사를 집중 조명했던 계기가 있는데 한국개신교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념주기에 맞추어 교단역사서를 기획저술한 사례이다. 19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직의 백주년을 맞은 2012년과 백주년을 예비하는 80주년, 90주년에 총회역사서가 각각 발간되었다. 장신대 역사도 학교 설립일을 기준으로 '70년사'와 '100년사'가 각각 기획·발간되었다. 한국개신교 역사서에 '100년사', '130년사'와 같이 기념연도나 시기를 기재하는 방식은 한국개신교사 저술의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sup>6)</sup> 저자는 대부분 총회, 노회, 당회가 지정한 이들로서 역시 교단내부의 연구자들이다.

김광수·안광국, 『장로회신학대학 70년사』. 장신대출판부, 197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80주년기념집(1912-1992)』.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2.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장신대출판부, 1994.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장신대출판부, 1997.

김인수, 『간추린 한국교회의 역사』. 장신대출판부, 1998.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1·2. 장신대출판부, 1998.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장신대출판부, 200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역사위원회, 『총회창립 90주년기념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상·하.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역사위원회, 『총회창립 90주년기념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

6) 100주년을 맞은 대부분의 교회들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체 교회사를 발간하고 있다.

상·하.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김수진, 『총회를 섬겨 온 일꾼들』,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김수진,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년사 1912-2012』. 홍성사, 2012.

안교성, 「총회 1백주년을 맞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명암」. 《기독교공보》, 2012. 2. 28.

안교성, 「한국장로교총회 100주년 회고: 한국장로교의 발달단계」. 『장로교회와 신학』 9, 2012.

임희국,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 한국장로교회 130년사』. 장신대출판부, 2013.

임희국, 「한국장로교회와 예장통합의 전통」, 『총회100년 한국장로교회 회고와 전망』.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4.

총회백년사발간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100년사: 미래로 열린 100년의 기억』. 한국장로교출판사, 2015.

교단역사 항목별로는 교단역사 개관, 총회역사, 장신대 역사로 분류되는데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술대상 기관의 특성과 저술목적에 맞게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총회역사는 주로 총회조직의 성립과 발전,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장신대 역사의 경우 교단신학교의 설립과 발전과정, 행정적 변화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세 분야의 저술관점은 비교적 동일한데 저술대상의 조직형성사에 중점을 두고 거시적 관점에서 교단생성, 발전, 확대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통합교단 연구자에 의해 ‘교회사’가 처음으로 발간된 것은 1994년 김인수의 『한국기독교회사』<sup>7)</sup>이다. 이 책은 교단신학교 교재발간 목적으로 기획되어 비로소 교단입장에 선 교회사가 나오게 되었다. 실제 내용은 한국장로교 분열 이전까지는 한국개신교 공동역사를 다루고 분열 이후에는 통합교단 중심의 서술이 포함되어 있다.<sup>8)</sup>

위의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한국개신교 통시는 교단분열 이전의 역사서술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많고 교단분열 이후의 역사는 교단입장을 드러낸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기독교역사, 한국교회사 저술은 교단을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몇 군데에서 저자의 교단입장이 드러나지만

7)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8) 전체 목차 중에 후반부의 두 장은 통합교단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술되었다. 4편 해방 후의 한국교회의 ‘6장 1960년대 이후의 교회와 신학의 변화’, ‘7장 새로운 세기에 들어 서면서-통일을 위한 준비’이다.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쿰란출판사, 2012)). 2013년에 발간된 임희국 교수의 저서도 거의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6년 여성안수의 실현, 2013년 생명살리기 운동,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를 소단원으로 다루고 있어 교단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임희국, 앞의 책.)

일반 독자들이 내용만으로 교단을 알기는 쉽지 않다.

유독 교단입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례는 교단분열 과정의 서술이다. 교단분열 과정만은 자교단의 입장과 관점을 변증하는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다른 교단의 통사에도 나타난다.<sup>9)</sup> 통합교단의 예를 들면 『장로회 신학대학 70년사』는 일명 '3천만환 사건'을 둘러싸고 당시 증인들의 다양한 입장을 수록하고<sup>10)</sup> 당시 박형룡 교장의 실책과 해결과정에서 일명 보수주의자들의 연합적 대응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100년사는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여전히 '3천만환 사건'이 분열과정의 주요 도화선임을 지적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개신교 역사를 교단사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책은 나오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교단사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는 교단사에 크게 관심이 없으며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도 거의 없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교회사는 교단사가 되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한국개신교 130여년의 역사에서 분열 이후의 역사가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50년, 200년이 되면 지금처럼 일괄적인 통사가 점차 불가능해지고 교단별 역사가 누적되면서 교단사가 지금보다 좀 더 다채롭게 구성될 것이다.

통합교단 총회역사는 주로 총회창립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물로 집중 발간되었다. 1992년 발간된 『총회 80주년 기념집』은 역대 총회의 성격과 주요결의사항을 정리한 총람 성격이며 총회 90주년에 발간된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는 5명의 교단연구자들이 각각 시기별로 장로교회 조직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김수진 목사는 총회 역사서 세 권의 저술에 참여<sup>12)</sup>하여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상·하』(공

9) 고신, 합동 측의 교단역사 서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박용규, 『한국기독교교회사』(생명의 말씀사, 2004), 969-1014쪽; 양낙홍, 앞의 책, 209-704쪽; 김영재, 『한국교회사』(이레서원, 2006), 250-274쪽.

10) 목차 중 제5편 재건기 '제5장 3천만환 사건', '제6장 양성봉 위원장의 보고서'에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다. 김광수·안광국, 『장로회신학대학 70년사』(성광인쇄사, 1971), 140-143쪽.

11) 반면 합동측 교단역사 서술에서는 '3천만환 사건'은 부수적인 요인이며 WCC반대와 보수주의의 전통수호의 입장을 강조한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 김영재는 교단분열 과정 설명에서 '3천만환 사건'을 배제하였다. 김영재, 앞의 책, 259-263쪽.

12) 김수진, 『총회창립 90주년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상·하』(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총회를 섬겨 온 일꾼들』(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년사 1912-2012』(홍성사, 2012).

저, 2003), 『총회를 섬겨 온 일꾼들』(2005),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년사』(2012)를 발간하였다. 그 중에서 『총회를 섬겨 온 일꾼들』은 역대 총회장에 대한 개괄적인 인물분석을 다루었기에 통합교단만의 인물연구의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sup>13)</sup>

기획저술 외에 교단사를 검토한 논문연구는 총 세 편이다. 안교성은 선교학적 관점에서 총회 100주년사에 관한 비판적 내용을 다루었다. 그는 한국교회 성장이 가져온 확장주의와 이익집단화를 지적하고 한국교회는 현재 토착화 진행 중인 교회이지 완성된 교회로서 선교지에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sup>14)</sup> 또한 백주년기념사업이 여전히 전통적인 선교관에 머물러 전도와 선교위주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5)</sup> 한편 안교성과 임희국은 통합교단의 에큐메니칼적 연합정신을 강조하여 분열된 장로교단의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sup>16)</sup>

연구사 검토에서 나타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쟁점에 관한 논의는 현재 교단역사 분야의 한계, 과제와도 연결된다. 첫째, 교단연구사에 교단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술의 경우 교단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이 교단분열 이후 시기에는 교단중심의 서술을 하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독자의 입장에서 통사를 보고 교단을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1990년대 들어 교단별로 한국개신교 통사를 발간한 곳이 많고 교단분열 이후의 시기는 자교단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교단분열 과정에 자교단 변증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저술들은 ‘한국개신교사’, ‘한국장로교회사’, ‘한국개신교역사’를 제목에 표방하고 있으며 교단 중심의 역사서술이라고 명시하지 않는다. 머리말을 보면 저자들은 저마다 스스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서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자의 관점에서는 교단명과 자교단 중심의 서술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인 저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통합교단사는 교단 역사서술의 특징적 요소가 적었

13) 본래 〈한국장로교회신문〉에 2년간 게재한 내용을 모아 발간한 책이다. 김수진, 『총회를 섬겨 온 일꾼들』.

14) 안교성, 「총회 1백 주년을 맞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명암」, 《기독교공보》, 2012. 2. 28.

15) 안교성, 「한국장로교 총회 200주년 회고: 한국장로교의 발달단계」, 『장로교회와 신학』 9(2012).

16) 안교성, 위의 논문.

다. 교단분열 이후 자체교단 정비가 본격화되었던 것이 1960년대부터이고 1984년을 기점으로 각 교단에서 한국개신교 통사작업이 일어났지만 통합교단만의 역사서술의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엇비슷한 교단사가 반복적으로 발간되는 느낌이 강하고 교단사를 직접 표방하지 않는다.

아마도 교단사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교단 자체역사가 축적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한국개신교전래 백주년을 넘어 150주년, 200주년이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교단사를 기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다양한 관점에서의 교단역사 서술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교단역사 개관과 총회역사, 장신대 역사로 분류한 구분을 넘어 다양한 교단역사 정립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단사는 조직형성과정과 변화, 발전과정에 중점을 둔 거시적 관점에 치중되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분야별 저술이 고려되어 할 것이다. 김수진의 사례처럼 교단 인물연구도 보완되어야 할 대표적인 분야이다.<sup>17)</sup>

넷째, 다양한 역사서술의 방식 중에 특히 미시사적 역사서술을 통해 교단역사의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지역 노회나 개교회가 자체 백년사를 발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백년을 맞는 노회나 개교회는 자체 역사를 남기고 싶은 역사적 본능이 자연스럽게 발휘된다. 이러한 역사적 관심은 교단연구사에서 차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미시사적 역사저술은 조직형성사 중심의 교단사를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신앙유형과 스토리가 축적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백주년을 맞는 노회와 교회가 증가하므로 백년사 집필은 한동안 유행될 가능성이 높다.

---

17) 김수진은 머리말에서 성결교의 인물사전에 자극을 받아 통합교단 인물연구를 기획하였음을 언급하였다. 김수진, 『총회를 섬겨온 일꾼들』(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6-7쪽.



### III. 선교

교단선교 연구사는 5편의 연구논문이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간 발표된 연구논문은 통합교단의 선교현황과 선교신학을 주로 다룬다. 연구 시기와 범위는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조직적 본격화한 1984년 이후 교단의 세계선교와 국내선교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미 역사분야 연구사에도 나타나듯이 1984년과 2000년은 선교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연구사 계기임을 알 수 있다.

김동선, 「21세기를 향한 선교신학」, 『신학이해』 13, 1995.

황순환, 「21세기 총회 선교신학의 방향성과 과제」, 『신학과 문화』 16, 2007.

김동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대회(1984) 이후 전개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세계선교」, 『신학이해』 43, 2012.

강성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농어촌선교」, 『신학이해』 44, 2012.

안승오, 「Trend of mission theology in 100 yea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Tonghap)(예장통합교단 100년의 선교신학 흐름)」, 『장신논단』 44(3), 2012.

김영동, 「한국장로교 선교100년: 장로교단의 선교신학 비교연구」, 『장신논단』 44, 2012.

선교분야 연구사를 검토해 보면 통합교단 선교신학의 통일성이 나타난다. 교단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선교신학이 교단연구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동선은 총회선교신학의 기초가 통전적 선교신학임을 분석<sup>18)</sup>하였고 황순환은 복음주의신학과 에큐메니칼 신학을 포괄하는 통전적 선교신학이야말로 가장 성서적이며 '하나님의 선교'라고 확신하였다. 또한 진정한 복음주의와 진정한 에큐메니칼 신학은 일맥상통한다는 논지<sup>19)</sup>를 펼쳤다. 이러한 논지는 다른 논문에도 해당한다.

'통전적 신학'은 이종성이 소개한 개념으로 통합교단의 신학적 성향을 대표하는 용어 중 하나이다. 통전적 신학이 교단 선교신학자에게 이견

18) 김동선, 「21세기를 향한 선교신학」, 『신학이해』 13(1995), 57-59쪽.

19) 황순환, 「21세기 총회 선교신학의 방향성과 과제」, 『신학과 문화』 16(2007), 382-396쪽.

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순환은 통전적 선교신학을 남아공 선교신학자 보쉬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보쉬는 정작 '통전적 선교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sup>20)</sup>

김동선은 1984년부터 전개된 통합교단의 세계선교 기조를 검토하면서 선교신학과 정책기조는 큰 변화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통합교단이 수립한 선교관련 정책은 1982년 '총회선교신학'과 '총회선교정책', 1984년 '세계선교의 해' 선포, 1997년 '우리의 선교신학',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신학지침', 2006년 '세계선교부 내규', 2007년 '2012 총회창립 100주년기념 비전선언문' 등이다. 여기에 나타난 선교신학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을 통합한 통전적 선교를 여전히 지향하고 있음을 분석<sup>21)</sup>하였다.

안승오도 100년의 교단역사에서 선교신학 흐름을 분석하면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신학의 통전성을 중시하는 선교신학이 가장 바람직한 신학방향임을 재확인하였다.<sup>22)</sup> 김영동은 장로교 4개 교단의 선교신학을 분석하면서 통합교단의 통전적 선교신학을 가장 균형적인 선교신학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교단 선교신학은 영혼구원·교회확장의 선교사역과 해방·변혁에 대한 헌신의 선교를 통합한다고 분석하였다.<sup>23)</sup>

연구사 검토에 나타난 통합교단의 선교신학은 '통전적 선교신학'으로 정리된다. 이것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신학의 통합적 성격이며 영혼구원과 교회확장의 선교, 해방과 변혁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참여적 선교사역을 포함한다.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선교사역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에 치중되었을 때에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신학이 가진 각각의 한계<sup>24)</sup>에 부딪친다. 그러므로 늘 두 가지 신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긴장관계에 놓여있다.

20) 황순환, 위의 논문, 393-396쪽.

21) 김동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대회(1984) 이후 전개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세계선교」, 『신학이해』 43(2012), 151-152쪽.

22) 안승오, *Trend of mission theology in 100 yea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Tonghap)*, 『장신논단』 44(2012), 93-110쪽.

23) 장로교 교단 중에서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기독교장로회측의 네 개 교단의 선교신학을 비교분석하였다. 김영동, 「한국장로교 선교100년: 장로교단의 선교신학 비교연구」, 『장신논단』 44(2012), 105-128쪽.

24) 복음주의신학의 한계는 개인영혼구원과 교회확장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참여적 성격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에큐메니칼신학의 한계는 사회참여적, 공동체의 일치적 성격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영혼구원과 교회확장에 치우치는 한계이다.

교단신학자들에게 일치된 선교신학이 공유된다는 점은 교단신학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선교신학의 일치성으로 학문적 분란이 없이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교단 선교신학에 별다른 쟁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교단 내에 선교신학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으며 합의된 선교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작 쟁점은 선교신학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과 현장에서 발생한다. 연구자들은 선교신학에는 이견이 없지만 선교현장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여전히 성장위주의 선교정책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통전적 선교신학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개인구원과 교회확장을 우선시하는 복음주의 신학적 선교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현실이다.

황순환은 선교신학의 과제로서 이제는 '성장의 교회'에서 '선교의 교회'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영동은 통전적 선교는 현장에서 여전히 불균형 상태라고 분석<sup>25)</sup>하였고 안승오는 복음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선교신학이 가진 약점을 언급<sup>26)</sup>하고 있다. 김동선은 91회 총회에서 결의한 'Target 2030'은 여전히 총회가 양적성장 위주의 선교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sup>27)</sup>고 지적하였다.

양적성장정책의 한계는 국내선교에도 이미 고질적인 문제이다. 강성열은 양적성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농어촌선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농어촌선교는 사실상 총회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저성장해 온 분야로서 84회 총회에서 농어촌선교부를 폐지하고 국내선교부로 흡수하였으나<sup>28)</sup> 강성열은 94회 총회에서 군농어촌선교부로 재조직된 결의안에 반대하고 농어촌선교부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후 농어촌선교부는 99회 총회에서 분리결의되어 2014년에 독립하였다.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선교분야의 중요성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교연구사 검토에 나타난 현실적 논쟁점은 바로 이상과 현실의

25) 김영동, 앞의 논문, 114쪽.

26) 안승오, 앞의 논문, 106-107쪽.

27) 91회 총회에서 결의한 'Target 2030'은 한국교회 선교100주년기념으로 세계선교의 해를 선포하고 2030년까지 15,522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계획이다.

28) 94회 총회에서 군농어촌선교부로 재조직되었다.

괴리이다. 통전적 선교신학과 선교현장의 괴리, 여전한 양적성장 위주의 선교정책의 현실, 여전한 개인선교사파송시스템 중심의 선교현장, 이러한 이분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할 것인가의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

이론적 쟁점이 아니라 현실적 논쟁, 극복해야 할 현실과제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선교시스템과 일원화를 중시하지만 여전히 개인선교사 파송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교회와 현지교회의 동역 관계 및 에큐메니칼 협력관계구축을 강조하지만 세계교회와의 협력관계를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김동선은 지적하고 있다.<sup>29)</sup>

또한 선교의 질적 성장은 어떻게 극복, 보완해야 할지의 문제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교단신학자들의 통일된 선교신학 노선이 현지의 선교사들에게도 통용, 공유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결국 선교신학이 현장에 적용될 때 어떻게 통합적, 통전적으로 이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선교신학 분야에서 통전적 신학은 결국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신학의 통합일 뿐 아니라 신학과 현장의 통합을 추구해 가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선교연구사는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선교분야별 연구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선교<sup>30)</sup>와 해외선교<sup>31)</sup>를 구분하여 각 분야의 소속부서와 분야별, 권역별, 세부분야에 대한 연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교분야별 연구사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선교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단 선교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과 대안분석에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다.

---

29) 김동선, 앞의 논문(2012), 176쪽.

30) 현재 교단총회 소속 국내선교부는 8개 분야별(전도, 개척선교, 청소년선교, 직장·병원 의료선교, 도시산업·이주민선교, 문화선교, 목회지원 및 개발, 상담 및 영성)로 구성되었다. 국내선교부 외에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농어촌선교부, 군경교정선교부, 훈련원,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등의 부서별 활동에 관한 연구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1) 총회 세계선교부가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선교분야는 권역별, 국가별 연구사가 지속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 IV. 기독교교육

한국 신학교에 기독교교육학과가 설치되고 학회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장신대 연구자들이 주도하면서부터이다. 기독교교육학이 통합교단 신학교에 학제화된 것은 1960년이다. 그 해에 숭실대 기독교교육학과가 설립되었는데 학과 특성상 교단직영 신학교에 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장로회신학대학교로 이전하였다. 이어 1961년에 한국기독교교육학회가 설립되고 1964년에 기독교학교연맹이 결성, 1970년에 들어서는 각 교단에서 기독교교육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논문집, 『한국 교회교육의 회고와 전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4.

김형태, 「21세기를 향한 기독교교육의 반성과 전망」. 『98 기독교교육대회: 21세기와 기독교교육(반성과 전망)…마 22:37-39, 신6:6-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고용수, 「21세기를 위한 교회교육의 방향」. 『98 기독교교육대회: 21세기와 기독교교육(반성과 전망)…마 22:37-39, 신6:6-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오인탁, 「한국교단의 기독교교육사」. 『한국 교단의 기독교교육사』,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고용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기독교교육사」. 『한국 교단의 기독교교육사』,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고용수 총장 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예영커뮤니케이션, 2002.

고용수, 「한국 기독교교육의 현황과 방향」.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새시대 기독교교육학의 방향과 과제』, 도서출판기독교, 2002.

오인탁, 「한국 기독교교육학 연구사」.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새시대 기독교교육학의 방향과 과제』, 도서출판기독교, 2002.

권용근, 「21세기 예장(통합) 신학교육에 있어 기독교교육학 정체성 모색에 관한 연구」. 『21세기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장신대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박종석, 「한국 기독교교육학의 성격과 전망: 1960-1999년을 중심으로」. 『21세기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장신대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박화경,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기독교교육학의 형성과 발전」. 『기독교교육정보』 31, 2011.

고원석·권대현, 「구심력에서 원심력으로: 시대적 변화에 응답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 기독교교육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27, 2011.

기독교교육학분야에서 교단연구사는 12편의 논문이 있다. 기독교교육

학이 교단신학교에 학제화된 시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수이다.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1984년과 2000년을 맞아 기독교교육학 연구사가 다수 등장하였다. 시간적 배경 외에 기독교교육학이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유독 연구사 검토가 많은 것은 기독교교육학분야의 학문정립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1960년 들어 해외 유학자들이 귀국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학이 국내 신학교에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 2000년을 맞아 학문적 정립욕구가 타 학문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연구사에서 연구자들은 ‘기독교교육’과 ‘기독교교육학’을 구분한다. 연구자들은 ‘기독교교육’은 해외선교사들의 국내 선교과정을 기독교교육 과정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한국개신교역사와 기독교교육사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1999년에 고용수는 한국개신교사의 맥락으로 기독교교육사를 시기 구분하였는데<sup>32)</sup> 이후의 연구자들도 이러한 구분을 별다른 이견 없이 활용<sup>33)</sup>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교육학’은 학문적 체계수립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그 출발점은 1960년대 숭실대 기독교교육학과 설립과 미국 유학자들의 귀국과 국내활동을 시작으로 잡는다.<sup>34)</sup> 본고의 내용은 ‘기독교교육’과 ‘기독교교육학’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맥락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1984년에 총회교육부는 『한국 교회교육의 회고와 전망』을 출간하였다. 이 논문집은 총무 맹용길을 비롯하여 각 분야 실무자들이 교단의 기독교교육의 현황과 반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교단총회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답게 실제적인 현황분석과 지적도 등장하고 있다. 노담도는 교단 교회교육과정이 삶의 현장에 대한 고려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였다.<sup>35)</sup> 그 외에도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외적 요소가 많으며<sup>36)</sup> 총회교육

32) 고용수는 한국 기독교교육사를 한국개신교사의 맥락으로 구분하였고 시기별로는 여명기(1884-), 준비기(1905-), 암흑기(1930-1938), 재건기(1945-1947), 반성과 도약기(1960-), 성장기(1970-)로 구분하였다. 고용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기독교교육사」, 『한국 교단의 기독교교육사』(한국기독교교육학회, 1999), 95-96쪽.

33) 고용수의 관점을 이견 없이 활용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오인탁, 「한국교단의 기독교교육사」, 『한국 교단의 기독교교육사』(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6-19쪽; 박화경,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기독교교육학의 형성과 발전」, 『기독교교육정보』 31(2011), 103-105쪽.

34) 오인탁, 「한국 기독교교육학 연구사」,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새시대 기독교교육학의 방향과 과제』(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2), 46-47쪽; 박화경, 위의 논문, 103-114쪽. 박화경은 1960년을 기점으로 기독교교육학의 학문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다.

부의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설정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이후에 보완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 우선 교단의 교회교육과 사회현장과의 괴리현상은 이후 연구사에도 계속 지적되는 문제이다. 1998년 기독교교육대회에서 김형태<sup>37)</sup>는 새로운 세기에 맞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합적 돌봄교육', '목회환경의 하나님나라 의식구조조정' 등과 같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하는 폭넓은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고용수<sup>38)</sup>는 2002년 "한국 기독교교육의 현황과 방향"에서 교회가 사회문제를 외면하고 교회내적으로 치우친 경향을 인정하고 기독교교육이 제자됨과 시민됨, 이 둘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이 여전히 '교회 안 교육'과 '교육부의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반성은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사회변혁을 중시하지만 여전히 교육 실무는 교회 안 기독교인 양육에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1999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는 한국대표교단의 기독교교육역사를 정리하고자 『한국교단의 기독교교육사』를 발간하였다. 오인택은 8개 교단의 기독교교육사를 비교연구하였고 고용수는 통합교단의 기독교교육사를 정리하였다. 오인택과 고용수는 모두 한국개신교 전래과정을 한국기독교교육사와 동일한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용수는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기독교교육의 커리큘럼은 10년마다 개정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두 연구자는 모두 교단에 교회교육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sup>39)</sup>을 폈다. 교회교육사는 일부 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현재까지도 통합교단에서 이 제도는 시행되지 않는다.

35) 노답도는 이 부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신대륙발견보다 더 큰 발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노답도, 「〈말씀과 삶〉교육과정 분석」, 『한국 교회교육의 회고와 전망』(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4), 378쪽.

36) 교육외적 요소가 많다, 또는 교회외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 실질적인 교회교육과 관련 없는 요소들이 많음을 의미할 것이다.

37) 김형태, 「21세기를 향한 기독교교육의 반성과 전망」, 『98 기독교교육대회: 21세기과 기독교교육(반성과 전망)』(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48-61쪽.

38) 고용수, 「한국 기독교교육의 현황과 방향」, 『새시대 기독교교육학의 방향과 과제』(기독교, 2002), 11-41쪽.

39) 오인택, 「한국교단의 기독교교육사」, 『한국 교단의 기독교교육사』(한국기독교교육학회, 1999), 21쪽; 고용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기독교교육사」, 『한국 교단의 기독교교육사』(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16-117쪽.

기독교교육학 분야의 연구사검토의 내용은 다소 비슷한 편이다. 특히 한국기독교교육사, 통합교단의 기독교교육사를 정리한 비슷한 논문이 다수 존재한다. 오인탁, 고용수에 이어 2011년에 교단의 기독교교육학을 정리한 연구자는 박화경, 고원석, 권대현이다. 그 역사흐름과 논조는 기존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독교교육 분야의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된다. 본 글에서 제시된 세 가지 쟁점은 현재 기독교교육 연구사에서 제기된 쟁점인 동시에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 기독교교육의 내용이 '교회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사회 속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육은 취약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84년부터 연구사에 끊임없이 지적되는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고용수는 1972년 총회가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설정하면서 '사회건설의 사명'을 명시하였지만 여전히 현실참여는 미흡하다고 지적<sup>40)</sup>하였고 90년대 들어 서구사회가 경험한 현대성을 도전을 경험하면서 사회가 당면한 윤리와 도덕문제를 외면한 결과 혼란을 초래하고 조직유지의 길들임 형태의 교육을 전락한 점을 비판<sup>41)</sup>하였다. 한국 기독교교육학의 초기 연구자인 주선애도 소극적 사회참여경향을 지적하였지만 여전히 사회 변혁적 요소는 약하다는 지적<sup>42)</sup>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 '기독교교육'과 '기독교교육학'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연구사에서 연구자들이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실제 내용은 변별하기 쉽지 않다. 때로는 '기독교교육'이 '교회교육'이나 '교단의 교육'과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한국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한계와 반성이다. 한국 기독교교육학의 정립과 발전과정은 미국 유학자들의 주도로 전개된 이후 한국적 정황에 맞는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7년 박종석이 논문에서 "현재 한국기독교교육학계에서 논쟁은 희소하다"고 언급한 내용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논쟁이 발생할만한 학문적 역량이 부재하며 그 구체적인 원인은 학문간 소통의 부재, 해외이

40) 고용수, 위의 책, 99쪽.

41) 고용수, 「한국 기독교교육의 현황과 방향」, 『새시대 기독교교육학의 방향과 과제』(기독교, 2002), 13-14쪽.

42) 박화경,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기독교교육학의 형성과 발전」, 『기독교교육정보』 31(2011), 117쪽.



론 소개에 그친 연구현실, 독창성 부재에 있다고 진단<sup>43)</sup>하였다. 또한 미국 기독교교육학을 비판적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방법으로 기독교교육을 하고 싶다는 언급<sup>44)</sup>을 고려할 때 한국적 상황에 맞는 기독교교육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는 문제이다.

## V. 조직신학

김이태, 「장신대 신학의 특색」. 《한국기독교공보》 1979. 9. 15.

이종성,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 『교회와 신학』 11호, 1979.

이종성, 「개혁신학의 본질과 총회의 신학논선」. 《한국기독교공보》, 1980. 1. 5.

김이태, 「장신대 신학의 위치와 그 특성: 전통과 혁신이란 긴장관계에서의 검토」. 『교회와 신학』 14, 1982.

장신대 출판부 편, 『(2000년대를 향한)신학과 교육: 장신대 교수세미나 자료집』. 장신대출판부, 1992.

한승홍, 「계보별로 본 한국신학사」. 『장신논단』 9, 1993.

고 김이태교수 저작 출판위원회 편, 『중심에 서는 신학: 김이태의 신학세계』. 장신대출판부, 1994.

이형기, 「장신대 신대원의 교육목적과 신학의 방향모색: 교과과목 구성을 위한 신학」. 『장신논단』 14, 1998.

총회헌법개정위원회 신앙고백교리분과위원회, 『21세기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이종성, 「한국교회 조직신학 100년의 발자취」. 『교회와 신학』 36, 1999.

강사문 외, 「특집 장로회신학대학교 100주년: 지난 1세기 그 신학의 형성」. 『교회와 신학』 44, 2001.

이종성 외, 『통전적 신학』.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4.

최윤배, 「21세기 교단신학의 정체성」. 『장신논단』 28, 2007.

신옥수, 「중심에 서는 신학, 오늘과 내일: 장신신학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소고」. 『장신논단』 40, 장신대출판부, 2011.

배요한, 「21세기 장신신학의 과제와 전망: 동·서양 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통한 통전적 한국신학을 지향하며」. 『장신논단』 40, 2011.

안교성, 「에큐메니칼 교회로서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정체성 증언」. 『장신논

---

43) 박종석, 「한국 기독교교육학의 성격과 전망」, 『21세기 한국 교회교육의 전망』(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459쪽.

44) 김도일, 「종교교육협회의 창립배경과 취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지속-반동-수정의 역사」, 『기독교교육정보』 4(1999), 366-367쪽.

단』 40, 2011.

김명용,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이고 복음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단」. 《한국기독교보》, 2011. 12. 8.

최윤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00년: 조직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장신논단』 44(2), 2012.

최윤배, 「한국장로교회 조직신학 100년」. 『조직신학 입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13.

김은수, 「한국 장로교의 ‘조직신학’ 교육과 연구역사(1901-1980)에 대한 고찰: 평양신학교와 장로교 주요교단 신학대학원(고신/장신/총신/한신)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74, 2015.

## 1. 교단신학 정립배경

조직신학 분야 연구사는 주로 교단신학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통합교단 연구자들이 교단신학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교단신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교단신학 정립이 이루어져 왔다.

통합교단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단비교가 필연적이다. 동일교단에서 분열된 공유된 역사가 있고 비교를 통해 교단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통합교단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교단정체성의 학술적 정립과정에 집중했던 합동측과 기장측은 교단의 대표인물인 박형룡과 김재준의 신학사상이 곧 교단정체성으로 인지되었다. 박형룡과 김재준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변자로 인식되었고 현재까지도 교단의 대표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두 교단과 비교했을 때 통합교단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합동측이 보수주의, 근본주의로 대변되고 기장측이 자유주의, 사회참여로 규명된다면 통합교단은 그 중간노선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교단분열 직후부터 교단정체성 정립과정이 활발하게 전개된 두 교단과 달리 통합교단이 교단정체성 수립에 적극 관심을 보인 시기는 1970년대 후반이다.

통합교단의 교단정체성 정립작업이 시기상 늦고 내용이 부각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분열 당시 교단의 대표인물이었던 한경직 관련연구가 미흡하였다. 특정인물중심으로 교단 정체성을 설명한 두 교단에 비해 한경직 연구는 분열직후에 그리 부각되

지 않았다. 한경직을 통합교단 대표인물로 인식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후학들이 그를 통해 교단정체성을 설명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발표된 이해정의 연구는 한경직과 통합교단 정체성의 관계를 정립하였다.<sup>45)</sup>

두 번째, 장로교 분열 당시 통합교단은 분열지양적 성격으로 양극단을 지양하는 태도를 고수했으며 교단정체성으로 각인시킬만한 뚜렷한 이슈를 형성하지 못했다. 당시 합동측과 기장측은 저마다 ‘보수주의적 근본주의, 성경무오설 지지’, ‘교회의 사회책임적 성격, 자유주의’ 등과 같은 뚜렷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교단은 ‘에큐메니칼 노선에 찬성, 참여입장을 표명하였지만 그것이 교단정체성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더구나 통합교단은 합동측과 기장측이 주장한 이슈를 전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양 극단을 지양하는 태도를 지향하였다.<sup>46)</sup> 즉 양측 교단의 이슈를 일부 공유하면서도 통합교단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설명하는 일은 두 교단에 비해 후대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 2. 1985년까지의 교단정체성 정립 최초의 학술적 언설

장로교 분열 이후 한동안 통합교단은 교단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 『장로교신학대학교 70년사』에 의하면 분열 직후 당시 신학교 학풍이 여전히 보수주의에 기울어져 있었고 몇 건의 신학적 논란이 있어 신학교 학생들이 교수를 총회에 고발하기도 했다.<sup>47)</sup> 보수 정통주의신학(성경무오설)은 70년대 중반까지 장신대에서 여전히 신봉<sup>48)</sup>되었고 보수 정통주

45) 이해정은 한경직이 그의 설교에서 통합교단의 정체성을 설명해 놓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비록 한경직이 학술적 언설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교단신학의 중심이 되는 에큐메니칼 신학과 교단신학의 뿌리와 근거, 한계를 설교에서 설명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한경직은 장로교 분열 당시 되도록 분열을 지양하는 태도를 고수하였다. 이러한 한경직의 신학적 한계와 태도는 통합교단의 정체성을 일차적으로 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해정, 『한경직의 기독교적 건국론과 복음화운동』(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학위논문, 2006); 한경직의 설교를 주제별로 분석하여 설명한 후속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해정, 『한경직의 시대와 설교』(박문사, 2017).

46) 한경직은 통합교단의 정체성을 ‘신앙적 보수주의, 신학적 자유주의, 에큐메니칼 노선, 교회의 사회적 책임’등을 강조하였다.

47) 신학교 교수들의 강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총회에 제소하는 일이 일어나 1966년 김요나 목사, 1967년 문희석 목사가 총회에 제소되었고 1967년 미국장로교의 신앙고백서로 인한 논쟁, 1980년대 장신대 신학노선 논쟁 등이 있었다.

48) 1970년대부터 성경비평학이 학문적으로 소개되었지만 소개에 그칠 뿐 활용, 적용은

의신학을 가진 이들이 교단실세로 활약<sup>49)</sup>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통합교단 신학에 대해 체계적 설명을 시도한 이는 김이태와 이종성이다. 두 사람은 장로교의 체계적 기틀을 쌓은 칼빈신학을 교단신학의 기초로 인정하는 한편 통합교단 신학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규명하였다.

김이태는 1979년에 개혁신학의 중심인 칼빈사상의 특징이 곧 장신대 신학이라고 밝혔다.<sup>50)</sup> 그는 장신대 신학이 '전통과 혁신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특정신학을 절대화하지 않고 새로운 사상과 사회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신학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학의 특징을 '중심에 서는 신학'으로 명명하여 1981년에 발표하였다.<sup>51)</sup>

이종성은 1980년에 교단신학의 범위가 신학적으로 보수 칼빈주의에 있고 교회운동으로 에큐메니칼 노선에 있다고 설명하였다.<sup>52)</sup> 1979년에 그는 본래 예수교장로회는 칼빈적 정통주의를 수용하였으나 통합교단은 칼빈주의를 계승하되 극단적 칼빈주의(합동측)나 개방적 칼빈주의(기장측)가 아닌 '성서적 복음주의'<sup>53)</sup> 신학노선에 있음을 설명하였다.<sup>54)</sup>

김이태와 이종성의 설명은 새롭게 등장한 학술적 언설이지만 그 내용은 새롭지 않다. 이미 교단에서 통용되고 있던 신학과 신앙적 범주를 체계화

---

금기시되고 있었다. 박장환, 「성경해석의 어제와 오늘」, 『교회와 신학』 44(2001), 123-133쪽.

49) 교단분열 직후 통합교단 내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었다. 첫째는 보수 정통주의 수호자들이다. 이들은 실제 교단실세로서 성서문자주의를 수호하며 합동측과 유대를 맺고 있었다. 한철하 교수가 중심이 되었다. 이종성, 「장로회신학대학교 100주년: 어제와 오늘」, 『교회와 신학』 44(2001), 112-122쪽.

50) 김이태, 「장신대 신학의 특색」, 『중심에 서는 신학』(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4), 204-208쪽; 김이태, 《한국기독교공보》, 1979. 9. 15.

51) 김이태는 1981년 5월 장신대 개교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전통과 혁신"이란 주제 아래 강연한 원고를 발표하였고 이후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강연으로 교단신학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이태, 「장신대 신학의 위치와 그 특성: 전통과 혁신이란 긴장관계에서의 검토」; 『중심에 서는 신학: 김이태의 신학세계』.

52) 이종성은 이 외에도 성서적 복음주의, 보수적 칼빈주의로 교단신학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종성, 「개혁신학의 본질과 총회의 신학노선」, 《한국기독교공보》, 1980. 1. 5.

53) 이종성,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 『교회와 신학』(1979); 『춘계 이종성 저작전집』 22(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169-190쪽.

54) 당시 1979년 9월 20일 시작된 64회 총회에서 한 회원이 불투명한 교단신학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 이종성은 이에 교단과 장신대 신학노선이 '성서적 복음주의'라고 대답하였다. 이종성, 「개혁신학의 본질과 총회의 신학노선」; 『춘계 이종성 저작전집』(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46쪽.

한 내용이다. '신학적 자유주의, 신앙적 보수, 에큐메니칼 노선, 극단을 지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학'의 내용은 이미 한경직의 설교를 통해 교단에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 1971년 발간된 『장로회신학대학교 70년사』에도 이러한 교단신학노선이 언급되어 있다.<sup>55)</sup> 한경직 이후 후대 연구자들인 김이태와 이종성이 교단신학의 교회사적 전통과 근거를 칼빈사상에 두고 당시 혼란스러웠던 교단신학에 대해 명확한 학술적 언어로 정립한 것이다. 김이태와 이종성이 제기한 교단신학 내용은 현재까지 후대 연구자들에게 이견 없이 지지받고 있다. 1985년의 <장로회신학대학 신학성명><sup>56)</sup>도 이러한 기초를 따르고 있다.

### 3. 1990년대 이후 연구자-합동측과의 변별, 새로운 표현

1990년대 이후 연구자들은 교단신학 논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유지, 발전시켜 왔다. 첫째, 교단신학을 특히 합동교단과의 구별된 신학노선을 정립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단신학의 근거를 칼빈주의보다는 개혁전통에 두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둘째, 교단신학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우선 90년대 이후 통합교단 신학이 합동측과 변별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연구자들은 한국장로교 분열 이전에는 보수적 근본주의신학이 주류를 이루었고 분열 이후 통합교단만의 신학정체성을 형성해 왔음을 변증하였다. 한승홍은 1993년에 한국장로교 신학계보를 세 개로 나누고 통합교단 신학을 '개혁전통에 선 복음주의 신학'에 두었다.<sup>57)</sup> 합동측의 신학은 '칼빈주의에 역점을 둔 근본주의신학'과 '근대 화란 개혁주의에 기초한

55) '그러면 장로회신학대학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보수신학은 합동측이 가져가고 진보주의는 기독교장로회가 가져갔다고 한다. 우리는 극단적 보수도 원치 않고 진보도 원치 않는다. 완고한 신앙도 싫고 세속화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굳건한 신앙과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학대학을 메고 나가 믿음에 살고 사랑에 사는 교역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김광수·안광국, 『장로회신학대학70년사』(장신대, 1971), 189쪽.

56) 1. 우리의 신학은 복음적이며 성경적이다 2. 우리의 신학은 개혁주의적이며 에큐메니칼하다 3. 우리의 신학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한다 4. 우리의 신학은 선교적 기능과 역사적 사회적 참여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우리의 신학의 장은 한국이요 아세아요 세계이다. 6. 우리의 신학은 기술사회의 문제들에 응답해야 한다 7. 우리의 신학은 대화적이다 "장로회신학대학 신학성명"(1985).

57) 한승홍, 『계보별로 본 한국신학사』, 『장신논단』 9(1993), 569-595쪽.

근본주의 신학'으로 세분하였는데 앞서 김이태와 이종성이 교단신학 기초를 칼빈사상에 두었던 것과 다소 다르지만 기본기조는 동일하다.

사실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는 구분이 모호한 면이 있으며 개혁주의(Reformism)를 칼빈주의(Calvinism)로 부르기도 한다. 한승홍은 칼빈사상을 절대화하지 않고 개혁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1996년에는 교단신학의 범주를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중도, 중심의 신학, 복음주의 전통'<sup>58)</sup>으로 규명하여 분열 이후 공유된 교단신학의 논의를 따르고 있으며 김이태와 이종성의 논의를 포함한다.

다만 한승홍은 1993년 논문에서 한국장로교 신학형성에 박형룡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통합측 학자들의 신학을 박형룡의 아류, 지류, 방계로 보는 시각에 반발<sup>59)</sup>하였다. 1993년 당시에도 이러한 변증이 필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변증의 분위기는 2000년대 초반에도 나타난다. 김명용은 2001년 논문에서 주재용과 유동식이 한국신학 분류에서 통합교단 신학을 합동측과 동일하게 '한국 보수주의적 정통주의, 또는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에 넣은 것을 반박<sup>60)</sup>한다. 또한 그는 보수적 정통주의가 아닌 진보적 보수주의에 통합교단이 있으며 새로운 신학사상에 배타적이지 않고 에큐메니칼 신학과 사회참여적, 역사책임적 태도를 지닌 통합교단 신학을 '한국 복음주의'로 명명하였다.<sup>61)</sup>

이종성도 1999년 논문에서 100년간의 한국 조직신학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흘러왔음을 인정하지만 통합교단 신학은 제3의 흐름으로서 칼빈사상을 중심으로 양자의 장점을 수용함을 설명하고<sup>62)</sup> 이러한 신학을 '통전적 신학'<sup>63)</sup>이라는 용어로 정립하였다. '통전적(Holistic) 신학'은 김이태의 '중심에 서는 신학'과 더불어 후대 연구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58) 한승홍, 『한국신학사상의 흐름』 상(장신대출판부, 1996), 3-4쪽.

59) 한승홍, 「계보별로 본 한국신학사」, 『장신논단』 9(1993), 579-580쪽.

60) 김명용, 「한국의 신학적 현황과 장로회신학대학의 신학적 위치」, 『이 시대의 바른 기독교 사상』(장신대출판부, 2001), 317-321쪽.

61) 김명용, 「한국신학의 현황과 과제」, 『전환기에 선 한국교회와 신학』(한국기독교학회, 1988), 103-109쪽. 이 글을 발전시켜 다음의 글을 완성함. 김명용, 「한국의 신학적 현황과 장로회신학대학의 신학적 위치」, 316-339쪽.

62) 이종성의 관점에서 한국장로교 분열은 '개방적 칼빈주의(기장측), '극단적 칼빈주의(합동측)'과의 분열이다. 이종성, 「한국교회 조직신학 100년의 발자취」, 『교회와 신학』 36(1999) (『춘계 이종성 저작전집』 37(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241-245쪽.)

63) 이종성, 『그리스도론』(대한기독교서회, 1984); 『통전적 신학』(장신대출판부, 2004)

통전적 신학은 온전함(holistic)을 추구하는 신학으로 편협함을 극복하고 중요한 정신, 관점을 간과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진리를 통합하여 온전한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이다. 이종성은 1984년 발표한 그리스도론에서 통전적 그리스도론의 이해를 강조하면서 ‘통전적’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고 2002년 4월, 장신대 춘계신학강좌에서 ‘통전적 신학’을 발표하였다.

1990년대 이후 김이태와 이종성이 제시한 용어가 통용되는 한편 교단신학 정체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였다. 김명용의 ‘온신학<sup>64)</sup>이 대표적이다. 온신학은 김이태와 이종성의 논의와 큰 변별점은 없지만 통합교단 신학정체성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새로이 등장한 용어이다.

후대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논의들을 대체로 따르는 편이며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sup>65)</sup> 이 말은 이제 어느 정도는 교단정체성 정립작업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

#### 4. 2000년에 수립된 연구들

교단신학 정립은 한국기독교역사의 기념주기인 1984년과 2000년을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장신대에서는 10년 간격을 두고 1992년과 2002년에 각 학문분야의 회고와 전망을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를 향한)신학과 교육’(1992)<sup>66)</sup>과 ‘장신대 100주년

64) 김명용, 『온신학』(장신대출판부, 2014).

65) 최윤배, 「깎쟁과 한국신학」, 『로고스』 38(2006. 8. 28); 이수영, 『개혁신학과 경건』(장신대출판부, 2006); 윤철호,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윤철호, 『신뢰와 의혹, 통전적인 칼근대적 기독교해석학』(대한기독교서회, 2007); 황승룡, 『21세기 한국교회와 신학』(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최윤배, 「21세기 교단신학의 정체성」, 『장신논단』 28(2007), 95-139쪽; 신옥수, 「중심에 서는 신학, 오늘과 내일: 장신신학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소고」, 『장신논단』 40(장신대출판부, 2011); 배요한, 「21세기 장신신학의 과제와 동향」, 『장신논단』 40(2011); 안교성, 「에큐메니칼 교회로서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정체성 증언」, 『장신논단』 40(2011); 김명용,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이고 복음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단」, 『한국기독교공보』(2011. 12. 8.); 윤철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통전적 예수 그리스도론』(대한기독교서회, 2013).

66) 장신대 출판부 편, 『(2000년대를 향한) 신학과 교육: 장신대 교수세미나 자료집』(장신대출판부, 1992.) 수록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중은, 「2000년대를 향한 장신대의 구약학과 교육」; 성종현, 「2000년대를 향한 장신대 신약학의 방향과 교육」; 이형기, 「2000년대를 향한 장신대 신학과 교육」; 이수영, 「21세기를 향한 장신대의 신학과 교육」; 김철영, 「미래, 가치 그리고 기독교 윤리교육」; 정장복, 「2000년대 실천신학을 교육할

지난 1세기 그 신학의 형성<sup>67)</sup>편이다. 10년의 격차가 있지만 내용상 차이는 크지 않다. 각 학문분야의 공통적인 지적은 여전히 한국적 신학의 필요성과 시대변화에 따른 학제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2000년 들어 교단신학은 ‘칼빈주의’ 보다 ‘개혁주의’를 더욱 핵심용어로 활용하고 있다. 1997년 82회 총회가 전반적인 헌법개정<sup>68)</sup>을 시행하면서 신학적 방향설정에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sup>69)</sup> 2001년에는 한 노회가 총회에 대하여 ‘장로교란 무엇인가?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요청을 헌의하였다. 그 일환으로 교단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여 “개혁신학과 교육 시리즈”<sup>70)</sup>를 기획, 현재 6권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합측뿐 아니라 합동측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최근 발간된 두 교단의 저술과 논문, 수업강좌명을 보면 ‘개혁주의’가 단연 우세하게 나타난다. 특히 합동측이 예전부터 내세웠던 ‘근본주의’, ‘보수주의’보다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더욱 선호하는 듯하다. 개혁주의는 박형룡을 비롯한 교단 1세대 연구자들이 쓰지 않았던 표현으로 교단연구자의 세대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

위한 탐색; 오성춘, 「신학-어떻게 할 것인가?»; 서정운, 「2000년대를 향한 선교신학»; 고용수, 「2000년대를 향한 신학교육의 방향»; 홍정수, 「2000년대를 향한 장신대의 교회음악 교육»; 맹용길, 「2000년대를 향한 장로회신학대학의 행정」.

67) 강사문 외, 『특집 장로회신학대학교 100주년 : 지난 1세기 그 신학의 형성』(『교회와 신학』 44, 2001.) 수록논문은 다음과 같다. 강사문, 「장신대 지난 100년 구약학 형성에 대한 회고와 전망」; 박수암, 「장신대 신약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형기, 「장로회신학대학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김명용, 「장신대 조직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맹용길, 「회고와 전망 기독교와 문화분야의 지난 1세기」; 정장복, 「지난 1세기 그 신학의 형성 실천신학」; 이광순, 「장로회신학대학교 100주년과 선교, 그리고 한국교회」; 고용수, 「장로회신학대학교의 100주년 지난 1세기의 '기독교 교육학' 형성과정」; 이종성, 「장로회신학대학교 100주년-어제와 오늘」; 박창환, 「성경 해석의 어제와 오늘」

68) 교리, 신앙고백, 권징, 예배의 예식 등을 헌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결의

69) 여기에 1994년 WARC(개혁교회 세계연맹,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신학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신학의 9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이형기, 「신앙고백서 작성을 위한 신학적인 방향설정」, 『21세기 한국장로교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78-81쪽.

70) 총회교육자원부 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2003), 『개혁교회의 역사와 신학』(2004), 『개혁교회의 종말론』(2005), 『개혁교회의 신앙고백』(2007), 『개혁교회의 예배 예전 및 직제 1』(2015),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2007).



## 5. 쟁점과 과제

교단신학 분야에서 쟁점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통합교단 조직신학이 연구자간에 이견 없이 수용되고 있으며 쟁점은 없는 듯하다. 조직신학은 새로운 시대환경에 대응하여 끝없는 신학정립작업을 필요로 하는데 왜 쟁점이 없을까 의문이 든다.

어쩌면 통합교단신학의 쟁점은 이론적 학술정립이 아니라 현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단신학 연구사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나날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단에 대응한 연구도 조직신학작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단신학이 교회현장과 평신도에게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가도 짚어보아야 할 과제이다.

필자가 있는 신학교의 경우, 학부와 신대원생들이 여전히 교단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례가 많다. 특히 에큐메니칼 신학노선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다고 느낀다. 통합교단의 신학적 노선인 에큐메니칼 신학노선에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직신학은 교단을 초월한 보편적 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학문인 동시에 교단신학의 핵심분야인 점은 감안하면 통합교단 신학지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VI. 맺음말

본 논문은 교단연구와 교단연구사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연구사 검토를 전개하였다. 연구사에 관련된 연구성과들을 목록화하고 분석함으로써 교단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연구지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사 검토에 나타난 쟁점을 파악하고 그와 연결하여 향후 연구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파악한 연구사 분야는 역사, 선교, 기독교교육, 조직신학 분야를 다루었다.

역사분야의 연구성과는 주로 한국개신교의 기념주기(1984년, 2000년)을 기점으로 기획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개인연구는 3편에 불과하였다. 1994년에 교단연구자가 집필한 통사가 발간되었고

그 내용은 교단분열 이후의 교단색깔을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교단분열 과정의 서술은 자교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런 현상은 타 교단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역사분야에 나타난 쟁점은 네 가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쟁점과 관련하여 향후 연구과제를 함께 도출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장로교역사는 130여 년인데 이 중 절반이 교단분열의 역사이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교회사 저술은 '교단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연구는 교단명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교단사', '교단역사'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독자의 혼란을 위해 교단을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물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역사서술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미시사적 역사서술이 활발해져서 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향후 과제로 지적하였다.

선교분야의 기존연구는 주로 총회역사 100주년과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총회선교에 대한 회고적 성격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기는 2007년부터 선교분야 연구사가 나오기 시작하여 6편이 해당하였다. 통합교단의 선교신학은 교단에서 통용되는 '통전적 신학'을 수용하여 '통전적 선교신학'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적 선교신학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교단선교신학자들은 통일되고 합의된 선교신학을 공유하고 있다.

선교분야의 쟁점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제기된다. 첫째, 여전한 성장위주의 선교정책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통전적 선교신학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개인구원과 교회확장을 우선시하는 복음주의적 선교방식이 주를 이루는 현장의 문제이다.

둘째, 선교신학과 선교현장의 괴리이다. 앞서 언급한 통전적 선교신학과 선교현장의 괴리 이외에도 개인선교사 파송시스템 중심, 양적성장 위주의 선교정책, 세계교회와의 협력부족 등이 모두 신학과 현장의 이분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향후 과제는 질적 성장을 위한 극복방안과 보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교단신학자들의 통일된 신학노선과 현지 선교사, 현지교회와의 공유를 고민해야 한다. 선교연구사도 지금까지는 교단차원에서 다루어졌지만 선교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분야별, 권역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독교교육분야는 1960년에 시작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다. 2000년을 전후로 기존연구 10여 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사한 편이다. 기존연구에서는 한국개신교의 전래과정을 기독교교육의 과정과 동일하게 보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힌 듯하다. 이 분야의 쟁점과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교육의 폭넓은 개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교회교육’ 위주이며 사회전체를 하나님의 선교의 장으로 인식하는 사회 변혁적 요소가 적은 점이다. 1984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기독교교육과 기독교교육학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구분을 설명한 연구자도 있지만 정작 연구결과물에서는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셋째, 한국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한계와 반성이다. 이것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임에도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해외이론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적 토양에 맞는 기독교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조직신학 분야는 네 분야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기존연구도 많았다. 조직신학이 교단신학의 핵심이므로 1979년부터 교단정체성에 관한 물음이 제기되었지만 타 교단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통합교단 신학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언설은 1979년 김이태와 이종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혼란스런 교단신학에 대한 물음에 학술적 답변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답변내용은 전혀 새로운 설명이 아니라 기존에 통용되고 있던 교단신학의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정립한 데에 의미가 있다.

1990년대에 들어 교단연구자들은 유사한 분열교단과의 차별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한다. 한승홍과 김명용은 통합교단 신학을 합동측과 동일하게 보는 학계에 반대하여 통합교단의 신학을 설명하는 작업에 열을 올렸고 이종성의 ‘통전적 신학’, 김명용의 ‘온신학’ 등이 발표되어 교단신학의 용어로 활용되었다.

2000년대 들어 교단신학의 키워드는 개혁주의로 바뀌었다. 이전에 김이태와 이종성이 칼빈주의의 세부분류에 집중한 반면 후대 연구자들은 이제 칼빈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를 더욱 활용하고 있다. 신학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용어의 선호도가 바뀐 것이다. 이것은 통합교단 뿐

아니라 타 교단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과제는 원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자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성과의 목록화, 분석과 연구동향 파악, 쟁점과 과제를 분석틀로 하면서 역사, 선교, 기독교교육, 조직신학을 다루다보니 개괄적 성격이 나타나게 되었다. 기존연구의 분량과 분석내용의 분량을 고려할 때 피치 못할 현상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의의는 통합교단의 교단연구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점에 있다. 이같은 시도를 시작으로 향후 학술적 논의가 전개되고 교단사, 교단연구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학교의 학문분야에 학제간 연구와 협력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고용수 총장 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예영커뮤니케이션, 2002.
- 고용수 외, 『21세기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 김광수·안광국, 『장로회신학대학 70년사』. 장신대출판부, 1971.
- 김수진, 『총회를 섬겨 온 일꾼들』.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김수진,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년사 1912-2012』. 흥성사, 2012.
- 김영재, 『한국교회사』. 이레서원, 2006.
- 고 김이태교수 저작 출판위원회 편, 『중심에 서는 신학: 김이태의 신학세계』. 장신대출판부, 1994.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장신대출판부, 1994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장신대출판부, 1997
- 김인수, 『간추린 한국교회의 역사』. 장신대출판부, 1998
-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1·2. 장신대출판부, 1998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80주년 기념집(1912-1992)』.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2.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98 기독교교육대회: 21세기와 기독교교육(반성과 전망)…마22:37-39, 신6:6-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개혁교회의 역사와 신학』.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개혁교회의 종말론』.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개혁교회의 예배 예전 및 직제 1』. 한국장로교출판사, 2015.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역사위원회, 『총회창립 90주년기념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상·하.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생명의말씀사, 2004.
- 양낙홍, 『한국장로교회사』. 생명의말씀사, 2008.
- 윤철호,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 윤철호, 『신뢰와 의혹, 통전적인 칼근대적 기독교해석학』.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윤철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통전적 예수 그리스도론』. 대한기독교서회, 2013.
- 이수영, 『개혁신학과 경건』. 장신대출판부, 2006.
- 이종성 외, 『통전적 신학』.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4.
- 임희국,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 한국장로교회 130년』. 장신대출판부, 2013.
-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장신대출판부, 2002.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편, 『(2000년대를 향한)신학과 교육: 장신대 교수세미나 자료집』. 장신대출판부, 1992.
- 총회백년사발간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100년사: 미래로 열린 100년의 기억』. 한국장로교출판사, 2015.
- 총회헌법개정위원회 신앙고백교리분과위원회, 『21세기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획위원회, 『한국 교단의 기독교교육사』. 1999.
-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획·출판위원회, 『새시대 기독교교육학의 방향과 과제』. 도서출판기독교, 2002.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논문집, 『한국 교회교육의 회고와 전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4.
- 황승룡, 『21세기 한국교회와 신학』.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2. 논문

- 강사문 외, 「특집 장로회신학대학교 100주년: 지난 1세기 그 신학의 형성」. 『교회와 신학』 44, 2001, 12-138쪽.
- 강성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농어촌선교」. 『신학이해』 44, 2012, 69-100쪽.
- 고병철, 「한국 종교교단 연구의 현실과 과제」. 『종교연구』 70, 2013, 67-95쪽.
- 고원석·권대현, 「구심력에서 원심력으로: 시대적 변화에 응답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 기독교교육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27, 2011, 307-354쪽.
- 김동선, 「21세기를 향한 선교신학」. 『신학이해』 13, 1995, 51-71쪽.
- 김동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대회(1984) 이후 전개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세계선교」. 『신학이해』 43, 2012, 151-184쪽.
- 김영동, 「한국장로교 선교100년: 장로교단의 선교신학 비교연구」. 『장신논단』

- 44(2), 2012, 105-128쪽.
- 김이태, 「장신대 신학의 위치와 그 특성: 전통과 혁신이란 긴장관계에서의 검토」.  
『교회와 신학』 14, 1982, 103-133쪽.
- 김은수, 「한국 장로교의 '조직신학' 교육과 연구역사(1901-1980)에 대한 고찰: 평양 신학교와 장로교 주요교단 신학대학원(고신/장신/총신/한신)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74, 2015, 97-135쪽.
- 박화경,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기독교교육학의 형성과 발전」. 『기독교교육정보』 31, 2011, 101-131쪽.
- 배요한, 「21세기 장신신학의 과제와 전망: 동·서양 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통한 통전적 한국신학을 지향하며」. 『장신논단』 40(1), 2011, 71-93쪽.
- 신옥수, 「중심에 서는 신학, 오늘과 내일: 장신신학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소고」.  
『장신논단』 40(1), 장신대출판부, 2011, 37-70쪽.
- 안교성, 「에큐메니칼 교회로서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정체성 증언」. 『장신논단』 40(1), 2011, 11-36쪽.
- 안교성, 「한국장로교 총회 100주년 회고: 한국장로교의 발달단계」. 『장로교회와 신학』 9, 2012, 25-51쪽.
- 안승오, 「Trend of mission theology in 100 yea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Tonghap)(예장통합교단 100년의 선교신학 흐름)」. 『장신논단』 44(3), 2012, 93-110쪽.
- 이종성,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 『교회와 신학』 11, 1979, 7-17쪽.
- 이종성, 「한국교회 조직신학 100년의 발자취」. 『교회와 신학』 36, 1999, 8-12쪽.
- 이형기, 「장신대 신대원의 교육목적과 신학의 방향모색: 교과과목 구성을 위한 신학」. 『장신논단』 14, 1998, 109-139쪽.
- 임희국, 「한국장로교회와 예장통합의 전통」. 『총회100년 한국장로교회 회고와 전망』,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4, 226-241쪽.
- 최윤배, 「갈뱅과 한국신학」. 『로고스』 38, 2006, 12-32쪽.
- 최윤배, 「21세기 교단신학의 정체성」. 『장신논단』 28, 2007, 95-139쪽.
- 최윤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00년: 조직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장신논단』 44(2), 2012, 41-73쪽.
- 최윤배, 「한국장로교회 조직신학 100년」. 『조직신학 입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2013, 56-96쪽.
- 한승홍, 「개보별로 본 한국신학사」. 『장신논단』 9, 1993, 569-595쪽.
- 황순환, 「21세기 총회 선교신학의 방향성과 과제」. 『신학과 문화』 16, 2007, 375-409쪽.

### 3. 사이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http://www.pck.or.kr/>

### 4. 기사

김명용,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이고 복음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단」. 《한국기독교공보》, 2011. 12. 8.

김이태, 「장신대 신학의 특색」. 《한국기독교공보》, 1979. 9. 15.

안교성, 「총회 1백주년을 맞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명암」. 《기독교공보》, 2012. 2. 28.

이종성, 「개혁신학의 본질과 총회의 신학논선」. 《한국기독교공보》, 1980. 1. 5.

### 5. 기타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 국 문 초 록

현재까지 한국개신교 연구경향은 교단별 차이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개괄적이고 총제적인 연구경향은 한국개신교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신교계에서 실제 종교 활동의 주체이자 단위는 교단이다. 그러므로 교단연구는 한국종교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앞으로는 한국개신교연구에서 구체적인 교단중심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교단연구사 검토는 현재 각 교단연구의 지형을 파악하고 향후 유관연구의 과제를 도출하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개신교단은 각자 정체성확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자체 교단연구를 실시하고 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교단존립과 발전의 근거를 삼는다. 그런 점에서 교단연구사 검토는 각 교단연구의 여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핵심적이다.

본 논문은 교단연구와 교단연구사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연구사 검토를 전개하였다. 연구사에 관련된 연구성과들을 목록화하고 분석함으로써 교단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연구지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사 검토에 나타난 쟁점을 파악하고 그와 연결하여 향후 연구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파악한 연구사 분야는 역사, 선교, 기독교교육, 조직신학 분야를 다루었다.

**투고일** 2018. 3. 19

**심사일** 2018. 4. 8.

**게재 확정일** 2018. 5. 30.

**주제어(keyword)** 한국 기독교(Korean Protestantism), 한국 개신교회(Korean Protestant Church), 개신교 교단(Protestant Orders), 교단연구(Research on Protestant Orders), 교단연구사(Research history of Protestant Orders), 대한예수교장로회(Prebyterian Church of Korea), 통합측(Tonghap Order), 교단역사(History of Protestant Orders), 교단선교신학(Missionary theology), 교단 기독교교육(Christian education), 교단신학(Theology of Tonghap Order)

## Abstracts

### A Review of the History of Denomination Study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onghap)

**Lee, Hye-jung**

The existing research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has had a tendency of not paying much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between denominations. A general and undifferentiated approach of research is bound to reveal a gap from the realities of the Protestant church in Korea. Religious activities in Protestant churches occur at the level of denomination. Therefore, denomination study provides basic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religious terrain in Korea. In the future, specific denomination-based research should be produced to fill the gap.

Reviewing the history of denomination study has significance in identifying the status of research on each denomination and drawing issues for further investigation. Korean Protestant denominations consider it necessary to study their own denominations for the shaping of identities, and utilize the research outcomes to locate the ground of their existence and development. In this regard, examining the history of denomination study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trajectory of the study of each denomination.

Up to now, most studies conducted within the Tonghap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ave addressed specific themes chosen by individual researchers. Although there exist some studies made on the research history in each disciplinary field, few analysis has been attempted on the research history of the denomination as a whole.

Recognizing the need to examine denomination study and its history, this paper looks into the history of research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onghap). By listing and analyzing findings relating to the research history, it tries to identify the trend of denomination research and its current status. Further, it attempts to identify issues emerging from the investigation and, based on this, present issues for future study on the research history. The areas of research history covered in previous studies are grouped into history, mission, Christian education, and systematic theology for analysis in this paper.